

광주 잇따른 대형사고...여름철 재난안전사고 대비 집중

호우·폭염·물놀이·산사태 등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선정 안전관리 강화·대책본부 운영

광주시가 호우(장마), 폭염, 물놀이, 산사태 등을 여름철 4대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정하고,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최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도심 하천 초등학생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광주시는 4일 올 여름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로 호우(장마), 폭염, 물놀이, 산사태사고 등 4개 유형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특히 올 장마는 6월 중순이던 시작되던 평년보다 늦은 '지각장마' 탓에 8월초까지 이어지고, 대기 불안정 등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도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호우 피

해 예방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우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주택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사전 점검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사고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기상예보에 집중하고 미리 대피장소와 유사 시 연결 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도 권고하고 있다. 광주시 자체적인 대응책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산사태 피해 예방과 선제적 대피 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투입해 산사태 취약지역, 대규모 산지전용지, 임도 신설 사업지 등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관리 등에 나서고 있다. 또 폭염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에는 취약계층·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피해를 줄이고 기온이 35도 이상, 3일 이상 지속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할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도 폭염 대비 119구급대 운영을 강화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24개 의료기관, 자치구

보건소, 질병관리청과의 협조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다음 달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해 황룡강 광산구 임곡교 주변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비상 근무반을 편성·운영한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각종 재난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안전사고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의 마음은 소록도에...많은 관심 감사”

‘소록도의 천사’ 오스트리아 간호사들, 문대통령에 답신

‘소록도의 천사’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간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글로 감사의 친필 답신을 보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때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마리안느 스토거,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에게 감사와 무릎 담요를 전달했다. 청와대가 지난 3일 SNS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마리안느 간호사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은 여사님 저는 여러분의 오스트리아 방문과 함께 많이 기도했다”며 “사진과 명함어 담긴 아름다운 편지와 감사과 담요, 사랑스럽게 포장된 선물에 감사드립니다”고 적었다. 그는 “(소록도는) 1960년대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고, 우리 둘

다 그 점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마음은 소록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문 대통령님 방문한) 비엔나에 갈 수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이름이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마리안느 간호사는 마가렛 간호사가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를 전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20대인 1962년과 1959년에 각각 한국으로 넘어와 약 40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했다. 2005년 건강이 악화되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조용히 출국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6월에는 대한민국 명예국민이 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이야 강변 등 야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도 없다. 정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들어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는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오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주변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 역시 최근 1주간 전국 평균이 1.20인데 반해 수도권은 1.25로 높은 편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매서운 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당초 7월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공원·산책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를 모두 마친 접종 완료자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경도 레지던스, 건축경관 심의 ‘조건부 통과’

“레지던스 철회” 반발 속, 미래에셋 “속도 내겠다”

미래에셋그룹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생활속박시설(타워형 레지던스)에 대해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재심의 열고, 조건부 의결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는 지난 2일 경도 레지던스 건립안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미래에셋 측은 경도 연륙교 진입부 6만 5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타워형 레지던스 1184실(11개동)을 건립할 계획이다. 재심에서 위원들은 안전을 의결하되, 4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경도 경관보존과 차폐감 완화를 위해 층수·규모 하향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물 간격을 20m 이상 확보하라고도 했다. 현재 건축안은 일부 건축물 간격이 단 12m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도 연륙교 아간 경관계획과 조화되는 아간 경관계획을 제시하고,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지역 작가 참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경도 레지던스 건립사업은 교육환경평가(도교육

청), 건축허가(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구조안전심의(전남도)를 남겨뒀다. 그러나 남은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 측은 당초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없던 레지던스 건립안을 들고나오면서 시작된 여수시의회, 여수 시민사회의 “레지던스 건립 계획 철회” 촉구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남도의원도 건축허가 심사 단계에서 계획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버티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내건 조건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경도 사업 전체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 난대숲 피톤치드, 소나무숲보다 최대 3.6배

지난해부터 전남지역 산림의 공기질 조사를 한 결과 난대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이 소나무숲보다 최대 3.6배나 높은 것을 확인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전남의 주요 난대수종인 붉가시나무, 구실잣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군락지와 온대수종과, 피톤치드 양이 많다고 알려진 소나무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계절별로 난대숲의 평균 피톤치드 발생

량이 소나무숲보다 1.1~3.6배 많았다. 피톤치드는 숲속 식물이 생존을 위해 박테리아나 해충 등을 퇴치하기 위해 만드는 살균성 물질이다. 인체의 스트레스 완화, 심신안정 등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 수목 생장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훨씬 높았다. 수종별 비교에서는 다섯 수종이 비슷한 수치지만 특히 붉가시나무가 1730 pptv로 소나무숲 1659pptv보다 더 높았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가스 요금 내년 6월까지 동결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일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법인 용역 결과 인건비 상승, 감가상각비 증가, 신규 배관 투자비 등 작년 대비 10.93%(9.12원/㎥)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시민, 소상공인 등 생활비 부담을 우려해 인상하지 않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6대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해 결정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며 소매 공급 비용은 사·도 지사가 승인한다. 광주 전역의 도시가스는 주식회사 해양에너지가 공급한다. 최근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가 해양에너지 인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불안정한 채유구조 변화 등을 우려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투자 하실분 5억이상

경기/수도권 물건
급매물/경매 특수물건
투자금 법적으로 보장
월2부 이상 수익 가능
20년노하우.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하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하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 및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선우이엔티(이하 "갑")와 주식회사 엘엔비기술(이하 "을"은(는) 2021년 6월 30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장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본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거하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계좌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5.

"갑" 주식회사 선우이엔티
광주광역시 서구 백석길 88(북동동)
사내이사 이병관

"을" 주식회사 엘엔비기술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남로 3(기재동, 엘엔비빌딩)
대표이사 이성희

산행안내

7월11일(일)
▲광주서산악회 7월11일(일) 경기도 가평, 명지산1252m, 연인산&용추계곡, 명지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 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시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3-6836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73-6836 백운 651-1833 봉선 673-6836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첨단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